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데살로니가후서 1:1~2:3.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40~45분)**

반원들에게 날짜가 없는 달력과 시침이 없는 시계를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고리와 성약 49편 7절**을 읽고 이러한 물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맞춰 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여러분은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은가? 그 이유는?
-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학생들에게 **엘마서 34장 33절과 35절**을 읽고, 이러한 구절들이 뒤로 미루는 것과 그것이 주는 결과들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찾아보게 한다.

항상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과 우리의 회개를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7절**을 읽고 질문한다. 이 구절 중 어떤 표현이 재림이 곧 있으리라는 뜻으로 그릇되게 해석될 수 있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또 다른 서한을 썼다. 재림이 여전히 미래의 일임을 보여주는 단어나 표현을 찾아보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10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재림이 있기 전에 성도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 바울은 어떤 위안을 주었는가?
-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읽는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밖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 왜 이 일이 바울의 시대에 성도들을 실망시켰을 수 있는가?
-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인가?

사례 연구 1: 여러분의 세미나 반에서 한 소년이 재림에 관해 내용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 소년은 자신이 선교 사업과 대학, 결혼, 그리고 자녀에 대해 계획할 시간이 충분한지 알고 싶어했다. 여러분은 그 소년에게 어떤 대답을 줄 것인가? 답에 대해 토론하고 나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의 다음 말씀을 들려준다.

**“제가 계시와 체험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긴 생애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십대의 자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자의 버릇을 망쳐 놓으면, 이어 그들은 그들의 손자의 버릇을 망쳐 놓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때 이른 죽음이 와야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을 행해야 할 좋은 이유가 됩니다.”**(Conference Report, 1989년 4월, 72쪽;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71쪽)

질문한다.

- 패커 장로의 이러한 통찰이 어떤 위안을 주는가?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 장래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사례 연구 2: 한 친구가 노변의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그곳에서 연사는 재림에 관한 꿈 이야기를 하며, 성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가르쳤다고 말해 주었다. 그 친구는 연사가 말한 대로 해야 할지 아닐지 알 수 없었다. 여러분은 친구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학생들의 반응을 토론하고 나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의 다음 말씀을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토론한다.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리 직분에 성별 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에 관한 계시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

**“종종 누군가가 부름받고 성별되지 않은 채 가르치고 축복할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바로 그런 이유로 교회는 직분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지지하는 과정을 그토록 신중하게 준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가 가르치고 축복할 권세를 가졌는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특이한 영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개인적인 부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하고 성스러운 성질의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Conference Report, 1989년 10월, 17쪽; 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19쪽)

질문한다.

- 패커 장로에 따르면, 누가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가?
- 특이한 영적인 경험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 우리는 누구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가?

사례 연구 3: 여동생의 세미나리 교사가 재림의 표적이 거의 모두 성취되었으며, 대이변이 다가오고 있고, 또 교회 회원들이 지금 당장 자신들을 위한 음식 비축을 하지 않는다면, 때가 늦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동생이 근심에 차서 집으로 돌아왔다.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여동생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학생들의 반응을 토론하고 나서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다음 말씀을 들려준다.

**“기독교사에서 몇몇 신자들은 다른 예언을 무시한 몇 가지 예언에 중점을 두며 성공하게 재림을 기대했습니다. 그 위대한 순간이 성금 다가선 것이 분명한 오늘날, 우리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그와 같은 경고와 관련해서 나는 ‘여름이 가까운’(마태복음 24:32) 것을 암시하는 확실한 표적에 대해 몇 가지 — 모두는 아니라 해도 —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교회 회원들은 크게 놀라지 않아도 되며 또한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조용히 의롭게 일상 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데서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Conference Report, 1988년 4월, 6~8쪽; 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7, 9쪽)

질문한다.

- 주님의 오심에 관한 모든 표적이 다 성취되었는가?
- 맥스웰 장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가?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살아 있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가 보내졌음을 간증한다. **브리검 영** 회장의 다음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내려오실 때의 광채로 악인이 소멸될, 다가오는 복수의 날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속히 이루시기를 지나치게 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갈망을 이 한 가지 일, 곧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일, 우리의 감정을 정결하게 하는 일, 우리에게 속히 다가오고 있는 사건들에 스스로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되도록 합시다. 이 일이 우리의 관심 사항이 되어야 하며, 이 일이 우리가 연구하는 바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 주님의 때를 인내심으로 기다리고, 다가오는 시대에 대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설교집, 9:3)